

전통과 현대의 조화

글로벌 시장 정조준하는 라싸 커피

서장자치구 라싸의 전통문화를 담은 커피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지역 색채를 살린 브랜드들이 점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장족 출신인 취무(措姆, 35세)에게 커피 한잔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세계의 지붕'과 전세계를 잇는 연결고리이다.

서장에서 쯔바(糌粑, 서장 전통 간식)를 먹고 버터차를 마시며 자란 그는 지난 2013년 상해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금융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2019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 남편을 대신해 작은 카페 운영을 맡게 됐다.

그는 카페 이름을 장어로 '친한 친구'를 뜻하는 '녕도(柠渡)로 정했다. 이후 남편을 만나기 위해 해외를 오갈 때마다 현지 시장을 살펴보고 동료들과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며 케냐와 등 커피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커피 품질 평가의 국제기준인 'Q-그레이더' 자격증 취득을 위해 20개가 넘는 시험을 한번에 통과하며 그간의 노력을 결실로 이어갔다.

'녕도' 브랜드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주목받고 있는 취무는 서장만의 커피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는 세대 지역 바리스타중 한명이다.



2025년 10월 12일, 서장자치구 라싸시 바리스타 대회에 참가한 '녕도' 커피 바리스타(왼쪽)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 / 신화넷

현재 라싸에는 800곳이 넘는 카페가 들어서며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카페 밀집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족식 커피는 야크 버터와 치즈 등 현지 유제품을 활용해 진한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으로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취무에게 '라싸의 맛'을 구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역 특산인 달콤한 밀크티와 에스프레소를

섞은 초기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두 맛이 어우러지지 않고 오히려 산미만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시절 굳힌 유제품을 떠먹던 기억에서 영감을 얻었다. 전통 장족 나무그릇에 굳힌 유제품과 버터를 따로 담아 손님이 각각의 입맛에 맞게 직접 섞어 즐기는 '라싸 라떼'를 선보인 것이다.

그후 '녕도' 커피는 현지인과 관광

객들 속에서 입소문을 타며 현재 라싸 전역에서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녕도' 커피는 서장 커피 브랜드중 유일하게 중국 대표로 런던 커피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전통 당카(唐卡, 서장 전통 미술 작품)와 장족 전통곡 가면으로 꾸민 부스는 나홀로 행사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1위와의 차이는 100~200파운드에 불과했다. "1위 업체는 20~30파운드의 제품을 팔았지만 우리는 4.9파운드짜리 스페셜 음료를 팔았다." 취무는 자기네 부스 앞에 가장 긴 줄이 서있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은 '라싸 라떼'를 마시며 서장이 어디에 있는지, 장족의 삶은 어떤지 묻기 시작했다. 커피 한잔마다 이야기가 담겨있음을 실감한 취무는 "외국 손님이 우리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취무는 "2026 라싸 커피 페스티벌"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행사는 전통 차집과 현대적인 커피 문화를 한자리에 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상해 커피 페스티벌과 협의를 진행, 약 10개 커피 브랜드를 라싸로 초청해 교류와 협업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신화넷

탐사 넘어 산업으로
해남, 심해 과학기술로 해양 경쟁력 향상



3월 5일,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정박한 '탐색 1호' 과학탐사선에서 '분투자'호 유인잠수정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 / 신화넷

해남성이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심해 과학기술 혁신 발전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칠레 아타카마해구 유인 심해 잠수 합동 과학탐사가 마무리된 후 '분투자(奋斗者)'호는 '탐색(探索) 1호' 과학탐사선에 탑재돼 총 36회의 잠수 임무를 수행하며 3,500점 이상의 생물 표본을 채집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분투자'호는 유인 심해 작업 모션인 '탐색 3호'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북극 말집 빙하구역에서 유인 심해 잠수 탐사를 마쳤다.

과거 화물 운송 항구였던 삼아 남산(南山) 항 역시 심해 과학탐사 모항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항구의 하드웨어 시설이 완비되고 여러 실험실 클러스터가 조성돼 과학연구 기관에 정박·보급, 선박 유지보수, 출항 회수 공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산항은 하역·저장·환적 등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해 탐사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실현했다. 할빈공정대학의 한 연구원은 "대형 장비를 하역해서 실험실로 옮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는 남해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이후 남산항에서 진행된 과학탐사 해상 테스트 회수는

년평균 200% 이상 급증하며 지난해 2,152회에 달했다. 이로써 남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과학탐사 모항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해남 심해 과학기술혁신에는 양호한 생태계가 한몫했다.

해남 삼아 애주만(崖州湾) 과학기술성심해 장비 가공·조립센터 플랫폼은 기계 가공, 압력 테스트, 잠수정 운영·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심해 첨단 장비 제조 기업의 현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1,000여개의 해양기업을 끌어들이었다.

한편 지난해 6월 8일에는 국가해양종합시험장(심해)이 해남에서 공식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시험장의 해역 수심은 1,000미터 이상으로 수백미터에서 2,000미터 이상까지의 다양한 테스트 환경을 갖춰 국내외 심해 과학기술연구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해양종합시험장은 국가급 공기술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수치 시뮬레이션, 수조 테스트, 실제 해역 테스트의 '삼위일체' 검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항자 공유'를 통해 과학연구 기관과 기업에 경제적·효율적인 시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 비용을 낮추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2025년 해남성의 해양생산업액은 2,009억원에서 2,920억원으로 증가했다. / 신화넷

심수, 지난해 신규 외자기업 약 1.6 만개... '제조기지' 넘어 '공동혁신거점'으로

광동성 심수시가 상업 환경 최적화와 탄탄한 혁신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심수시상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외자기업은 약 1만 6,000개로 전년 대비 63.3% 증가했다. 월평균 1,300개 이상 신설된 셈이다. 실제 외자 사용액은 연간 504억 8,000만 원으로 그 전 해 동기 대비 14.4% 늘었다.

현재까지 전세계 180개 국가(지역)

가 심수에 투자하고 글로벌 500대 기업중 340개 이상이 심수에 거점을 배치했다. 심수가 '제조기지'를 넘어 '공동혁신거점'으로 전환하면서 외자 투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투(河套) 심수·항항과학기술혁신합작구 심수단지에 위치한 애플수용용실험실 들어서는 각종 정밀 기기와 첨단장비가 눈길을 끈다. 이 실험실은 지난 2024년 10월 가동을 시작해 제품 전 주기를 아우르는 검증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공급업체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심수를 방문한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비 카한은 "심수는 애플에 중요한 지역으로 초기 공급망도 이곳에서 구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력사와 공동으로 실험실을 설립해 자사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현지 공급망에 결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협력을 강화해 차세대 기술

이 개념 단계에서 량산으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수는 200개 이상의 외자 R&D 센터와 3만명이 넘는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 지멘스, 스타벅스, 티뷰비 라인란드 등 다국적 기업들도 심수에 혁신센터와 연구개발·제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심수 하이테크산업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230억 원을 넘어섰다. / 신화넷



청도직업기술학교 체화인공지능 로봇 산업 일군 양성

올 들어 청도직업기술학교는 체화인공지능 로봇 실습기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로봇 응용 사례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로봇 설비 운영·유지보수, 데이터 수집, 애프터서비스(售后服务) 등을 학습하며 체화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성장시키고 있다.

사진은 3월 26일, 인간형 로봇의 점검 및 유지보수 방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 신화넷

항항, 국제금융센터지수 세계 3위 아시아·태평양지역 1위

세계 금융도시로서 항항의 위상이 계속되고 있다.

3월 26일, 중국(심수) 종합개발연구원과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Z/Yen)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9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항항은 계속해서 세계 3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를 유지했다. 항항의 종합 점수는 1점 상승한 765점으로 세계 1위인 뉴욕, 2위인 런던과의 점수차가 각각 2점, 1점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항은 핀테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켰다. 금융산업 각 분야 종사자 평가에서

도 항항의 순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그중 '은행업'과 '융자' 부문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보험업'과 '투자관리'는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또한 항항은 '기업 환경', '인적 자본', '인프라', '금융업 발전', '도시 평판' 등 5개 경쟁력 지표에서도 계속 세계 상위 3위권을 유지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보고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된다. 이번 39차 보고서는 전세계 120개 금융센터를 평가 대상으로 했다. / 신화넷

朝夕奔梦

富文明和自公平法爱敬诚友善 强主谐由等正治国业信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任明兆作